“금호타이어 파업 안된다” 지역경제계 호소

노조, 단체교섭 결렬선언…쟁의행위 찬반투표

광주상의 “협상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지난해 5년간의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최장기 단체교섭 및 파업사태를 겪은 금호타이어가 올해 또다시 파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계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임금협상이 올해 1월 종료된 탓에 2015년 단체교섭을 놓고 불과 4개월 만에 테이블에 마주한 노사는 1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이견 차이로 협상을 중단했다. 지역 경제계는 파국을 막기 위해 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 이전에 협상을 통해 교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최근 열린 11차 본교섭에서 회사는 ‘2015년 단체교섭 전체합의를 위한 회사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지만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며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이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회사의 현재 제시안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약속과 이행 ▲임금 970원(일당) 정액인상 ▲성과금은 2015년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 ▲임금피크제 연동한 정년 60세 연장 등이다.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분기 경기침체와 천연고무 가격의 인상, 환율변동으로 인한 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2.2%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48.5% 감소해 5.8%에 그쳤다. 워크아웃 졸업 이후 경영상황이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쟁사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이 13.7%로 훨씬 우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사 대비 경영실적이 열세에 있지만 노조에 대한 임금 및 복지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면 노조가 회사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단체교섭에서 ▲기본급(월) 15만9900원(8.3%) 인상 ▲2014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배분 ▲조건없는 정년 60세 연장 ▲연·월차 복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임금인상 수준인 1.5%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동종업계 최고 대우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종업계의 임금이 이번 단체교섭의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며 “파업을 해야하는 상황을 사측이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연초에 이어 또다시 대립 국면으로 들어서자 지역 경제계는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협상 결렬로 파업이 강행되면 그 여파는 지역 협력업체는 물론 금호타이어를 납품받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호타이어의 경영실적 악화 등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임금을 동결한데다 타이어 업계 경쟁사 역시 경영환경 악화를 대비해 1%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파업으로 금호타이어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상황에서 또다시 파업이 진행된다면 금호타이어는 물론 지역경제도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파업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고, 가결될 경우 24일께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3.62 (+10.31) 금리 (국고채 3년) 1.77%

▼ 코스닥 781.99 (-0.65) ▲ 환율 (USD) 1158.30원 (+6.20)

무안~일본 기타큐슈 항공노선 취항

조이투어 10월부터 주 3회

내년 무안~나고야 노선도

오는 10월부터 무안에서 일본을 주 3회 오가는 준 정기성 항공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에는 무안-나고야 노선도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형여행업체 조이투어(대표 최금환)는 오는 10월9일부터 1년 동안 매주 월·목·토요일에 무안공항을 출발,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공항에 도착하는 전세기 항공노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무안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오가는 준 정기성 노선이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취항하는 일본노선의 항공기는 일본 스타플라이어의 A320기종으로 기존 180석짜리 좌석을 승객 편의를 위해 150석으로 조정, 전 좌석에 대해 비즈니스석에 가까운 안락함과 쾌적함을 제공하게 된다. 비행시간은 이륙 후 1시간 이내이며, 항공료도 편도 기준 6만9900원부터 판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행상품은 기존의 전통적인 큐슈 온천여행을 비롯해 일본 메이지 유신의 본고장이자 일본 100대 명품길로 유명한 야마구치, 일본 3대 절경의 하나인 히로시마현 미야지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남큐슈 가고시마, 미야자키 여행 상품과 함께 골프 상품도 선보인다. 이들 상품의 가격대는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해 야간에 출발, 일본을 여행하는 기존의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이투어측은 왕복 항공료에 호텔(1박)을 묶어 총 26만9000원(10명 한정)이라는 파격적인 가격대의 자유여행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항공 시간은 무안공항에서 오전 6시40분에 출발해 기타큐슈에 오전 7시50분 도착하며, 돌아올 때는 기타큐슈에서 오전 4시40분에 출발, 무안공항에는 오전 5시50분에 도착한다.

최금환 대표는 “광주·전남 지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본 여행을 하려면 무려 왕복 9시간이나 걸리는 인천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준정기성 일본 노선 취항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무안공항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조이투어 (062)234-32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광주시·한전 공동 에너지밸리 성공조성 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시,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21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에너지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광주시 경제산업 현황과 육성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기산업 현황 및 비전’과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한전 구매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에너지밸리 조성계획’ 등 지역 중소기업과 한전의 협업을 위한 지원제도 설명회로 이어졌다.

한전은 ‘한전 구매제도 및 중소기업 제도’ 발표를 통해 입찰방법과 예정가격 결정 프로세스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등 최근 변경된 주요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 한전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결정과 함께 추진된 ‘에너지밸리 조성계획’ 설명은 기업 유치와 R&D협력 및 인재양성, 지역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상생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한전의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가 될 수 있도록 상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J5’ 출시 삼성전자가 22일 앞면에 500만 화소 카메라와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J5’를 출시한다. 신제품은 고화질 카메라 및 LED 플래시를 휴대폰의 앞면에 탑재해 야간이나 어두운 실내에서 밝고 또렷한 ‘셀피’(Selfie)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 북미 소비자 만족도 ‘최고’

美 ‘JD파워’ 조사…4개 부문 1위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제품이 북미 소비자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1일 미국 최고 권위의 시장조사업체인 ‘JD 파워’의 2015년 세탁·주방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4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11개 세탁·주방가전 부문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드럼세탁기와 전자동세탁기, 의류건조기, 프렌치도어 냉장고 등 총 4개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5(Among the best)와 함께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는 전체 평균 점수인 827점을 크게 웃도는 846점을 획득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전자동세탁기도 평균 점수인 811점을 압도하는 836점의 높은 점수로 총 9개 브랜드 중 1위에 선정됐다. 글로벌 냉장고 1위의 삼성전자 냉장고는 프렌치도어 부문 평가에서 평균 점수인 820점보다 21점, 2위 보다는 13점이나 높은 841점을 받으며 총 10개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휴가철 ‘쌈채류’ 값 크게 오를 듯

비·일조량 감소로 공급 줄어

광주와 전남지역 과채류 값이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공급물량이 줄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쌈채류’ 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주전에 비해 쌈채류인 상추값이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무, 풋고추, 깐마늘은 값이 소폭 올랐다. 지난 20일 기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거래 중인 쌈채류 상추는 휴가철 소비는 늘어난 반면 잦은 비와 생육부진으로 공급물량이 줄면서 100g당 소매가격은 2주전 500원에서 600원으로 값이 20% 올랐다. 상추와 함께 쌈에 애용되는 풋고추도 100g당 650원에서 700원으로 값이 7.69% 상승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쌈채류 값은 소비 활성화로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교체기 공급불안정과 생육기 가뭄피해로 인한 작황부진 속에 ‘무’ 가격은 1개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값이 25% 상승했다.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 등 작년 산 재고물량도 여유롭지 못한 ‘깐마늘’도 1kg당 6500원에서 7500원으로 가격이 15.38% 올랐다. 또한 과일류 중 사과와 배는 전문 취급 상인들의 출하조절로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일류는 갈증 해소용으로 소비는 증가했으나, 포도 등 다양한 햇과일 출하로 인한 소비분산으로 큰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쌈채류 등 일부 채소류는 강보합세가 예상되나, 기타 대부분 품목은 방학을 맞아 급식용 납품수요 감소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